

뒤뜰의 잡초

지난 주 오랜 만에 뒤뜰에 나가보았다. 한 달이 넘게 비가오던 뒤뜰을 창문 너머로 보며 가끔 감상하곤 했지만 나갈 일은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처음 나간 것이다. 그런데 멀리서 보았던 뒤뜰과 직접 나가 보았던 광경은 전혀 달랐다. 멀리서 보았을 때에는 아름답기만 했지만 가까이에서 보았던 뒤뜰에는 잡초가 많이 자라 있었다. 내 생각에는 아직 겨울이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봄을 알리는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다. 부랴부랴 작년에 사다가 놀은 값비싼 잡초 약을 물에 듬뿍 섞어 마음껏 뿌리기 시작했다. 자라는 잡초를 처음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에 힘이 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앞뜰과 뒤뜰을 돌아가며 한 시간 가량 뿌렸던 것 같다. 그리고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의자에 앉았다. 해는 거의 지고 있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 하늘이 어제 그때보다 많이 어둡다. 급하게 일기예보를 찾아보았다. 이를 어찌나! 2시간 뒤부터 밤새도록 비가 온다는 것이다.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힘들게 돈을 들여 뿌린 약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급한 마음에 괜히 수고하게 된 것이다. 며칠 뒤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뿌려야겠다.

그 잡초를 보면서 봄이 오는 것을 직감했다. 아직은 50도를 겨우 넘고 있지만 식물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는 것 같다. 자신이 잎을 내고 꽃을 내야 할 때를 알고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지도 상관하지도 또한 알지도 못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나도 그렇게 덜 민감하게 하나님 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세상에 너무나 민감해서 정작 민감해야 할 믿음생활이 무덤덤해지는 경우들이 생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꽃을 내고 살아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의 온도를 측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라고 하신다. 구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지금 우리는 많은 소식들을 듣는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다. 약이 없는 병이 돌아서 온 세계가 떠들썩하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일어나고 얼마나 더 크게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마음이 급하고 안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잡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때를 알고 피어나듯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며 세계가 더욱 좋아짐을 알 때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이 들어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